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03.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8 |
| IV. 국제신인도 | 10 |
|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1,964천 km ² | GDP | 11,984억 달러 (2012년) |
| 인구 | 115.00백만 명 (2012년) | 1인당 GDP | 10,421 달러 (2012년)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 통화단위 | Peso(Ps) |
| 대외정책 | 친서방 실리주의 | 환율(달러당) | 13.17 (2012년) |

- 멕시코는 광활한 국토(한반도의 약 9배)와 석유, 은 등 풍부한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 기준으로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임.
- 마약 범죄 등과 관련된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니에토(Nieto)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포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NAFTA 출범 이후 북미시장 접근성 증대에 힘입어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e |
|------------|------|------|------|------|-------------------|
| 경제성장률 | 1.2 | -6.0 | 5.3 | 3.9 | 4.0 |
| 재정수지 / GDP | -0.1 | -2.3 | -2.9 | -2.5 | -2.4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 5.3 | 4.2 | 3.4 | 4.1 |

자료: EIU.

□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 시현

-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등으로 2010년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임.
- 2011~1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4%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 상한 상회

- 저금리와 폐소화 절하,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를 기록하여 인플레이션 목표 상한(4%)을 상회함.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9월에는 4.8%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1월에는 3.3%를 기록함.
- 멕시코 통화당국은 물가보다 성장을 중시하여 저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08년까지 균형 수준을 유지해온 재정수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09년 이후 GDP 대비 2~3% 수준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멕시코는 복잡한 조세제도, 좁은 세원, 탈세 등으로 정부의 세입 기반이 취약하여 원유 판매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 및 품목 확대 등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GDP 대비 국내총투자 증가 추세

- 2012년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9.5%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기계 및 설비류, 건설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저금리 및 양호한 성장세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호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고정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 지속

- 2011년 멕시코 수출의 약 80%, 수입의 약 50%가 대미 수출 및 수입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음.
-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성장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 셰일가스(4위), 동(5위), 은(6위) 등의 부존 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6위(중남미 1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6위(중남미 1위) 수준임.
- 또한 멕시코는 GDP 1조 달러 이상, 인구 1억 이상인 경제대국이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 및 높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당분간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NAFTA 회원국으로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EU, 중남미 G3 국가 등 세계 40개국 이상과 1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 EU,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및 물류 거점으로서 큰 이점을 지니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

- 신임 니에토 대통령은 2012년 12월 주요 3당(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대표와 함께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에 서명하고 교육, 연방 및 주 정부 재정, 통신, 세제, 선거운동, 범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부당해고자에 대한 보수 축소,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노동조합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이 2012년 11월 상원을 통과함.
 - 그동안 멕시코는 지나친 근로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노동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증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42년 만에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함.

- 2013년 2월, 니에토 대통령은 교사의 임용과 해고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적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법에 서명하였으며, 교육계 거물인 고르디요(Gordillo) 전국교원노조(SNTE) 위원장을 체포하는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멕시코는 공교육 분야에 교직 매수 등 부정부패가 성행해 왔으며,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PISA)에서 65개국 중 51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교육 경쟁력이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또한 니에토 정부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PEMEX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등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PEMEX는 멕시코 정부 재정수입의 1/3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국영기업으로, 기술 및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여러 건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1일 석유생산량이 2004년 340만 배럴에서 2011년에는 255만 배럴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개혁 필요성이 대두됨.
- 니에토 대통령은 원유의 탐사, 생산 및 정유 등의 핵심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허용, PEMEX의 유지보수 인력 충원 및 내부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체결

- 멕시코 정부는 외환위기 예방책의 일환으로 2009년 4월 IMF에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제도(FCL)'를 신청, 첫 수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3월과 2011년 1월에 IMF와의 차관 계약을 갱신함.
- 또한 2012년 11월 멕시코 정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IMF와 2년간 73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금융안전망을 확보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e |
|-------------------|---------|---------|---------|---------|-------------------|
| 경 상 수 지 | -17,952 | -5,204 | -1,669 | -9,153 | -6,687 |
| 경 상 수 지 / G D P | -1.6 | -0.6 | -0.2 | -0.8 | -0.6 |
| 상 품 수 지 | -17,261 | -4,681 | -3,009 | -1,468 | 163 |
| 수 출 | 291,343 | 229,704 | 298,473 | 349,375 | 370,915 |
| 수 입 | 308,603 | 234,385 | 301,482 | 350,843 | 370,752 |
| 외 환 보 유 액 | 95,126 | 99,589 | 120,265 | 143,991 | 160,413 |
| 총 외 채 잔 액 | 214,522 | 209,011 | 243,563 | 280,954 | 322,375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19.6 | 23.7 | 23.6 | 24.3 | 26.9 |
| D S R | 14.8 | 18.4 | 14.0 | 15.1 | 16.4 |

자료: IMF, EIU, IIF.

□ 2012년 상품수지 흑자 기록

-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 증가로 2012년 상품수지는 199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1.6억 달러)를 기록함.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상품, 서비스,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이 1% 미만으로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됨.

□ **적극적인 외환 확보 노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멕시코 정부는 실물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환 확보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600억 달러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996('09) → 1,203('10) → 1,440('11) → 1,604('12)

□ **2012년 FDI 유입 급감**

- 미국의 경기침체, 에너지 부문 투자진출 장벽, 치안 불안 등에 따라 2012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27억 달러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니에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은 향후 FDI 유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외채규모 증가로 외채구조 다소 악화**

-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차입 증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채권발행 확대 등으로 최근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DSR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등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12월, 페냐 니에토(Pena Nieto) 대통령 취임

- 2012년 7월 1일 실시된 대선에서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페냐 니에토 후보가 38%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12월 1일 대통령에 취임함.
 - 제도혁명당은 2000년까지 70여 년간 정권을 잡았던 중도좌파 정당으로서, 전임 칼데론(Calderon) 정부에서 지속된 치안불안 및 저조한 경제실적을 비판하며 12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함.
- 니에토 정부는 치안 강화, 세제 개편, 에너지산업 민간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 12월 니에토 대통령과 주요 3당(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대표는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에 서명함.
 - '멕시코를 위한 협약'은 니에토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3당 대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95개 개혁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함.
-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식날 발생한 반대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부정부패 등으로 제도혁명당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점과 2012년 7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제도혁명당이 과반의석 획득에 실패한 점 등은 향후 국정운영의 불안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마약 범죄 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 지속

- 전임 칼데론 정부는 마약 카르텔 수뇌부 검거 등 강력한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실시했으나, 마약 카르텔과 군경간 충돌 및 마약 카르텔간 세력 다툼 등으로 2006년 이후 7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마약 범죄 등 치안 문제는 니에토 정부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로 니에토 대통령은 취임 후 1만여 명의 특수경찰대 설립, 연방경찰 개편, 치안 예산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 치안전략을 발표함.
- 최근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비공식부문에 고용된 청년 비중이 높은 점 등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이나 전국적인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

- 니에토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 밀매 등 치안 문제,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이민법 개혁으로 자국 불법체류자들(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약 60%)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들의 본국 송금 등이 멕시코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 추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안데스 경제권과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등의 다자 협정 참여와 주요 교역상대국인 브라질 등과의 양자 협정 추진을 통해 대미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멕시코는 현재 40개국 이상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신중한 외채관리정책 집행

- 멕시코는 2003년에 2019년 만기의 브래디(Brady) 본드를 조기상환했으며, 2006년에는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어 온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6~07년에 기일이 도래하는 정부외채 124억 달러를 조기상환하는 등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을 펼쳐 국제금융시장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64억 달러(단기 61억 달러, 중장기 203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억 1,590만 달러(단기 60만 달러, 중장기 1억 1,530만 달러)로 전체의 0.4%를 기록하고 있어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하향조정 이후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는 2009년 7월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관광 수입 급감,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을 반영하여 멕시코의 등급을 종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정부 세입기반 약화, 경기부양 지출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 등을 반영하여 2009년 11월 멕시코의 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도 세입기반 확대 실패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등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멕시코의 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3월 12일, S&P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의 보수적 운영 및 정치·경제 개혁안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멕시코의 등급 전망을 'BBB/Stable'에서 'BBB/Positive'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등급 | | 종전 평가등급 | |
|---------|---------|-----------|---------|-----------|
| 수출입은행 | B2 | (2013.03) | B2 | (2011.12) |
| OECD | 3등급 | (2013.01) | 3등급 | (2012.10) |
| S&P | BBB | (2013.03) | BBB | (2012.07) |
| Moody's | Baa1 | (2013.02) | Baa1 | (2011.12) |
| Fitch | BBB | (2012.05) | BBB | (2012.01)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월 26일(북한과는 1980년 9월 19일)
- 주요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1966년), 경제과학및기술협정(1977), 관광사증면제협정(1979),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범죄인도조약(1996), 투자보장협정(2000), 세관협력협정(2005)

□ 대 멕시코 상품수지 흑자 지속

- 멕시코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1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30위 수입대상국이며, 1988년 이후 대 멕시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2012년 기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제6위 상품수지 흑자 대상국임.
- 멕시코와의 교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1억 달러에서 2009년 81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104억 달러, 2011년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116억 달러(수출 90억 달러, 수입 26억 달러)로 소폭 감소함.
- 대 멕시코 주요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관,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금속광물, 아연광, 합금철 등임.

<표 4> 한·멕시코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 대 멕시코 | 2010 | 2011 | 2012 | 주요품목 |
|-------|--------|--------|--------|--------------------------|
| 수 출 | 8,846 | 9,729 | 9,042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관, 자동차부품 등 |
| 수 입 | 1,521 | 2,316 | 2,592 |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합금철선철및고철 등 |
| 합 계 | 10,367 | 12,045 | 11,634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멕시코 직접투자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는 2008년 3억 66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5,509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6,365만 달러, 2011년 1억 4,860만 달러, 2012년 3억 8,523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12월 말 누계 기준 대 멕시코 직접투자 규모는 총 199건(신규법인 수), 15억 2,896만 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임.

V. 종합의견

-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국제유가 상승,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고정투자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외채규모가 증가하면서 DSR 및 GDP 대비 총외채 비중 등 외채구조가 다소 악화됨.
- 2012년 12월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하여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등으로 치안 불안이 지속되어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규모가 증가 추세이나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체결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송호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